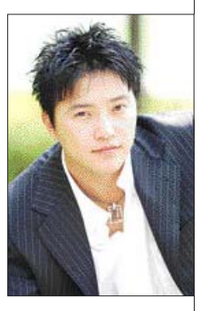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안재모의 변신
'왕과 나' 환관으로 출연



배우 안재모가 27일 첫 방송하는 SBS 대하사극 '왕과 나'(극본 유동윤, 연출 김재형)에 환관 정한수 역으로 출연한다.

사극에서 주로 왕이나 세자를 연기했던 그로서는 색다른 변신이다.

'왕과 나'는 문종 때부터 연산군에 이르기까지 환관으로서 임금을 섬긴 내시 처선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그린 드라마로 오만석이 처선 역을 맡았다.

안재모가 연기하는 정한수는 내시 양성소 시절부터 처선을 질투하던 라이벌. 총명함과 재능이 있지만 비뚤어진 시기심 때문에 정도를 걷지 못하고 사사건건 처선에게 시비를 거는 인물이다.

'제2의 차승원' 꿈꾼다

오지호·송종호 등 모델출신 연기자들 활약 두드러져

〈오지호〉

〈송종호〉

인기리에 방영중인 MBC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는 '와플 선기' '자뻑 하림' '민폐 민엽'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종업원 3인방'이 등장한다.

주인공인 한결 역의 공유와 고은찬 역을 맡은 윤은혜의 사랑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이들 3인방의 인기 역시 만만치 않다. 3인방 중 선기와 민엽 역을 맡고 있는 연기자들은 모두 모델 출신.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에서 모델 출신 연기자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역시 모델에서 출발한 차승원, 권상우, 소지섭, 강동원 등은 이미 톱스타로 우뚝 선 상태. 이들의 뒤를 이어 '제2의 차승원' '제2의 소지섭'을 꿈꾸는 배우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모델 출신 배우들은 일단 185㎝가 넘는 키의 완벽한 몸매와 개성 있는 얼굴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끈다. 아직 연기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신선함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고은찬의 여동생인 은새를 죽자 살자 쫓아다니는 무식한 민엽 역의 이언은 씨름 출신 패션모델이다. 모델이 되기 위해 30㎏을 감량하기도 했던 이언은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를 통해 연기자로 변신에 성공한 후 이번 드라마에서 맛깔스런 조연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 방송중인 한 맥주 CF를 통해 이름을 알린 '와플 선기' 역의 김재욱 역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델 출신이다. 드라마 '오달자의 봄' 등에 출연한 바 있는 김재욱은 '러닝 하이'라는 밴드의 기타와 보컬로도 활동하는 등 다재다능함을 뽐내고 있다.

오지호는 주연급으로 급성장했다. SBS 주말드라마 '칼잡이 오수정'에서 엄정화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오지호는 영화 '미인' '은장도' 등에 출연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한예슬과 함께 출연한 드라마 '환상의 커플'을 통해 입지를 다진 후 이번 드라마에서는 당당히 남자 주인공 고만수 역을 맡아 열연중이다.

추상미와 함께 SBS의 '8월에 내리는 눈'의 주연을 맡은 조동혁 역시 패션모델 출신이다. 성현아와 출연한 영화 '애인' 등을 통해 눈도장을 찍은 조동혁은 드라마 '사랑하는 사람아' 등을 거쳐 '8월에 내리는 눈'에서 당당히 주역으로 자리잡았다.

'커피 프린스 1호점'에 출연한 김재욱(왼쪽)과 이 언.

'8월에 내리는 눈' 후속 프로그램으로 오는 17일 첫 방영되는 '날아오르다'의 남자 주인공을 맡은 김남진 역시 패션 모델 출신이다.

드라마 '날아오르다'는 결혼한지 6개월 만에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책임지고 있는 열혈종부 이진희(왕빛나 분)가 해외입양아 출신 CEO 제임스 오닐(김남진 분)과 펼치는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다.

SBS의 '황금신부'에 출연중인 송종호는 연기자로 어렵게 자리잡은 케이스. 이국적인 외모와 훤칠한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시원한 워킹으로 패션쇼 무대를 장악했던 알아주는 톱 모델 출신 송종호는 '뉴논스톱' 등에 출연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군 제대후 '외과의사 봉달희'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후 '황금신부'에서는 자신의 아내에게 약혼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차갑게 변하는 김영민 역을 맡았다.

그밖에 최근에 막을 내린 '한성별곡-정'의 이천희, 드라마 '궁'과 '마왕'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주지훈 역시 일급 모델 출신 연기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JK김동욱 4집 '낯선 천국'
발라드 넘어 '낯선 장르'와 만나다

JK김동욱(32·사진)의 매력적인 저음은 쓸쓸한 감성을 자극하는 맛이 일품이다. 등줄기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여름보다는 서늘한 가을의 감수성과 코드가 맞는다. 록보다는 슬픈 발라드에 어울린다.

데뷔 후 처음으로 한여름에 발매된 JK김동욱의 4집 '낯선 천국'은 이런 선입견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노작이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그동안 여러 장르를 다양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음악적 딜레마에 빠져 있었죠."

첫 트랙이자 타이틀곡인 '쿵팍 라이프(Life)'는 이런 그의 고민이 응축된 곡이다. '미련한 사랑' 이후 따라붙었던 '슬픈 발라드 전문 가수'라는 별칭을 무색하게 하는 재즈-힙합 퓨전 장르다.

'낯선 천국'에서는 영국풍 모던 록을 시도했다. 6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에 얽힌 감정을 실었기 때문일까. 몽환적이면서 서정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평소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바비 킴과는 '브레이크 다운(Break Down)'을 듀엣으로 불렀다. JK김동욱의 저음과 바비 킴의 담백한 창법이 뒤섞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절묘한 화음을 연출했다.

"바비 킴 선배라면 원곡의 감성을 두 배 정도 더 잘 표현해 주실 거라고 믿었죠. 평소 저에게 음악적 영감을 줍니다."

물론 발라드도 여러 곡 실었다. JK김동욱 특유의 애절한 목소리를 기대했던 팬이라면 윤도현이 하모니카를 연주한 '해바라기'와 드라마 '마왕'의 삽입곡인 '사랑하지 말아요'가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앨범에서 그는 5곡을 작사·작곡했다. 이전 음반에서 1~2곡 정도를 직접 만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연합뉴스

10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디워	145만	226만7천900
2	화려한 휴가	65만 4천800	293만 1천500
3	다이하드 4.0	19만7천400	289만 1천700
4	라따뚜이	13만 3천600	64만 4천200
5	기담	13만2천800	24만 2천400
6	트랜스포머	8만9천000	724만 9천400
7	1408	8만3천700	14만5천100
8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6만1천400	364만2천400
9	에반 올마이티	2만2천900	22만4천900
10	힛쳐	8천400	1만5천600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하늘만큼 땅만큼	KBS1	31.5
2	대하드라마 '대조영'	KBS1	30.2
3	커피 프린스 1호점	MBC	25.5
4	KBS뉴스9	KBS1	19.9
5	상상플러스	KBS2	19.6
6	며느리 전성시대	KBS2	17.9
7	황금신부	SBS	17.4
8	무한도전	MBC	17.0
9	황금어장	MBC	16.7
10	강남 엄마 따라잡기	SBS	15.8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300	액션
2	이장과군수	코미디
3	극락도 살인사건	스릴러
4	동갑내기 과외하기 레슨2	코미디
5	아포칼립토	액션
6	못말리는 결혼	코미디
7	넘버23	스릴러
8	1번가의 기적	드라마
9	우아한세계	드라마
10	미녀는 괴로워	드라마

〈자료제공:엑스트리〉

가요

순위	제 목	가 수
1	사랑앓이	F.T 아일랜드
2	소 프레시	MC몽
3	나 이젠	VOS
4	사랑의 인사	씨야
5	눈물로	제이
6	오아시스	브라운아이드걸스
7	마이 앤젤	플라이투더스카이
8	아이 프로미스 유	원티드, 이정
9	발레리노	리쌍
10	사랑…그게 뭔데	양파

〈자료제공:멜론〉